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5 Number 4 4 2017

지혜와 지식의 근본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분야와 생각에 대하여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자신이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말할 때 놀란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옳음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뀐다. 진화론 세상에 사는 크리스천에게 진화론이 틀리고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이다.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상은 인간을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말하는 한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다. 이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자신의 귀

P.O.Box 819, Norwalk, CA 90650 / TEL 562 868 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중함을 확인하고 기뻐한다. 세상은 우리가 옷을 입게 된 것은 춥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수십억 년의 까마득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생물들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세상은 자연과정을 거쳐 점점 고등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 창조했을 때가 좋았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물이 저주 받아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한다.

세상은 동물들이 신호와 같은 의사소통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처음부터 완벽한 언어를 구사했다고 말한다. 세상은 남녀가 살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위의 예뿐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관점들은 성경과 상반된다. 그만큼 세상은 성경과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거의 반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 놀라고 끊임없이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한다.

그 가운데 역사를 보는 관점도 성경은 기존 생각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시대에 산다고 하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이 놀라운 기술을 보며 진보를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는 더욱 발달된 기술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전혀 상반된다. 역사상 과학 기술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세상인데 자신은 원숭이와 비슷한 존재에서부터 진화되어 왔다고 믿는다. 이 완벽한 우주가 전자보다도 작은 물질이 폭발해서 되었다고 말한다.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이런 것들이 현대인이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가장 고상하다고 믿는 바이며, 현재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이런 상상들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의 어머니가 곰(웅녀)이었다고 하는 것이나, 신라의 시조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전설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이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연선택, 생존경쟁, 유전자 변이, 적색편이 등과 같은 고상한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물론 이런 과학적 용어들이 종류를 변하게 한 '진화'의 메커니즘이거나 우주가 '폭발'로 시작되었음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technology)은 어떤 면에서 축적의 결과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것들은 이전에 전기, 전신, 전화 등을 만들었던 지식의 누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내가 누구인지, 옷의 기원, 생물의 기원, 우주의 기원, 언어의 기원 등은 기술의 발달과 무관한 것들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기술의 축적이 궁극이나 당위에 대한 지식을 줄 수는 없다. 아래 성경 말씀은 마치 오늘날 진화론과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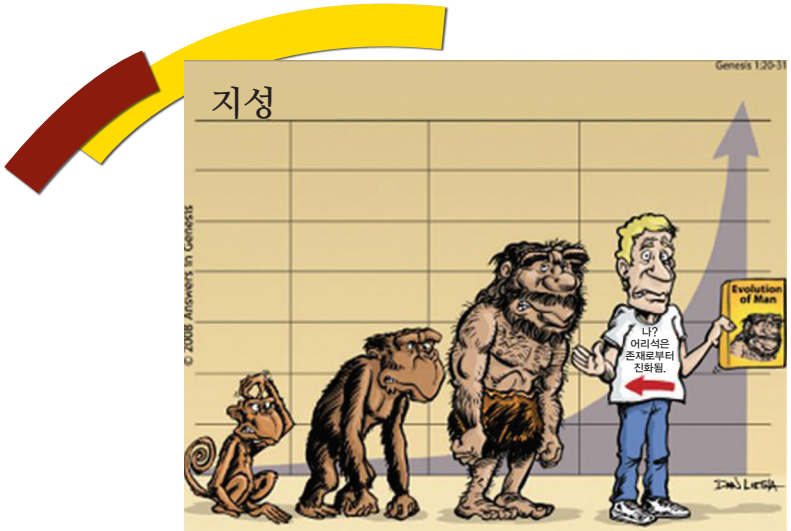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0–23)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성될 것을 말한다. 그것이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롬1:22

별 별을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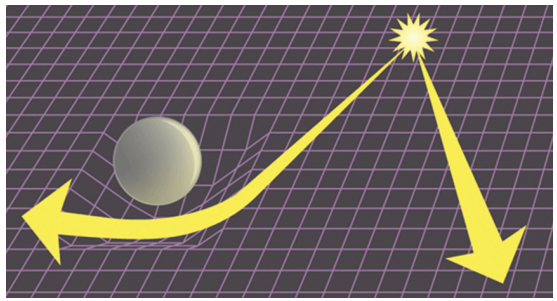
별을 정말 보셨나요? 천문우주 강의시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예" 또 다른 분들은 "아니오"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잠시 후 "정직하게 말해서 무엇을 본 것이지요?"라고 하면 곧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빛이요"라고 답한다. 그렇다! 우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빛들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별빛이라고 생각한다.

청명한 밤하늘이라면 육안으로도 수많은 빛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빛 중에는 그동안 지상에서 보낸 인공위성들이 반사하는 빛들도 있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과 각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 또 화성과 목성 사이에 띠(벨트)로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이나 운석들이 반사하는 빛들, 또 태양계를 돌고 있는 혜성들이 반사하는 빛도 있다. 하여튼 우리는 밤하늘에 많은 빛을 보면서 별들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별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먼저 맑은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에 동전을 넣고 관찰해보자. 물속에 들어 있는 동그란 동전을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바르게 보기가 쉽지 않다. 공기와 유리 그리고 물속의 빛의 굴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일지라도 우리의 시력은 사실 그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을 보자. 천문학적인 거리에서 보내 오는 그 빛이 어떠한 경로로 오고 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 또 그 빛을 통하여 그 실체까지 알 수 있을까? 일반 과학과 달리 천문학은 관찰에 크게 의존하는 학문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하였지만 별들과 은하계를 가까이 접근하여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상상일 뿐이다. 또한 별들은 고체면이 없고 고온의 가스체로 보기 때문에, 또 가장 가까운 별이라도 지구에서 보내는 신호가 도착하려면 수 년이 소요되므로 레이져빔이나 레이더로도 연구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별을 포함한 은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별빛을 대상으로 한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은 해와 달,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라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신 사실과 그 목적을 말해 준다. 이는 어떤 긴 과정을 뜻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들의 창조가 일 순간의 사건임을 말해준다.

이어서 별의 기원에 관해서는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16b)"라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그리고 각각의 별들의 고유하고 특이한 경이로움 또 그 광대하고 끝이 없는 우주에 대하여 긴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간결하게 한 마디로 말하고 있다. 성경의 기록은 지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므

과연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 없이 빛의 현상만을 관찰하고 그 기원의 답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로 다른 긴 설명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또 성경은 오늘날에서야 비로서 확인하게 된 과학적 사실, 즉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렘33:22a)"라고 이미 기록하였고,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렘31:15b)", 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시19:1)"고 그 의미와 목적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별들의 실체에 대하여 확인되거나 검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달리 사람들의 주장은 수많은 책으로 출판되어 설명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별들의 실체를 직접 탐사하지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오직 그 빛을 관찰하고 세워진 각종 이론으로 우주의 경이롭고 신비한 조화와 질서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과연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 없이 빛의 현상만을 관찰하고 그 기원의 답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구약성경 신명기는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신4:19)", 또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배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이까(시8:3-4)"라고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만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놀라운 말씀으로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 행성(planet): 스스로 빛을 생산하지 못하고 빛을 받아 반사하는 천체
- 위성(satellite): 행성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행성의 주위 궤도를 선회하는 천체
- 별(star): 스스로 빛을 만들어 방출해 내는 천체
- 은하계(Galaxy): 별들의 집단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은평교회(창조과학탐사)

지난 2월 1-9일 은평감리교회(담임목사 김영헌)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주로 교회 어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 세대가 진화론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드시 젊은 세대를 창조과학탐사에 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에는 8기 ITCM 훈련생들도 참석하여 지식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 동춘교회(창조과학탐사)

지난 2월 20-26일 인천동춘교회(담임목사 윤석호) 청년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앞선 은평감리교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청년들로만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진지하게 임하며 진화론으로 가득찬 세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들도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동료들 뿐아니라 부모님들을 꼭 모시고 오겠다는 바람도 나누었습니다.

8기 ITCM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

지난 12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된 여덟 번째 창조사역 집중훈련이 종료되

었습니다. 10명의 훈련생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과 창조과학 내용을 통해 참된 역사와 복음의 본질을 확인했으며, 훈련에 깊이 집중할수록 성경에서 마음이 떠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오늘날 창조과학이 교회와 캠퍼스,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을 느꼈고, 그 효과적인 도구를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 안팎에 침투해 있는 진화론적 지식과 사상들이 얼마나 복음과 성경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준비된 젊은이들을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불러주시고 훈련하게 하심에 찬송을 드립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성경을 선명하게 전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아시고 물질과 기도로 마음 다해 섬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춘교회

이재만 회장 한국 방문

이재만 회장은 3월 1-26일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서초충신교회, 일산일암교회, 영신교회와 한동대학교, 합동신학원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타협의 거센 바람" 책이 출판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불고 있는 타협이론에 대한 문제점과 경고에 대한 책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이재만 회장은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에서 "지질시대표의 탄생과 영향"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한국 방문 동안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권 사역 – 세미나 및 신학교 강의

빌(Bill Hoesch)은 지난 1월 31일 리버사이드의 창조과학 그룹(The Inland Empire Creation Science Association)에서 "그랜드캐년: 부인할 수 없는 전지구적 홍수 "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아 홍수의 전지구적 격변을 부정하기 위해 쓰여져 2016년에 출판된 <그랜드캐년: 고대 지구의 기념비-노아의 홍수가 그랜드캐년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빌은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홍수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명쾌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또, 2월 25일에 윌밍톤의 창조과학 그룹(The South Bay Creation Science Association)에서도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참여한 이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열심에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야외조사 인도

또한, 빌은 지난 8주동안 Southern California Seminary에서 "기원에 관한 과학적 모델"이란 강의명으로 학부생 대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창조사역집중훈련(ITCM)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엘 카존 지역에서 야외조사를 인도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은 과학이 빅뱅을 오래전에 증명했다고 믿고 있다. 빅뱅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한 작은 공간에 뭉쳐 있음으로 시작했다. 그 누구도 이유는 모르지만 – 어느날 그것은 폭발했다. 어쨌든, 입자들은 조절되고 스스로 조직되어 행성과, 별들, 그리고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나 두 개의 중요 요소는 빅뱅을 동화로 강등시킨다.

먼저, 견고한 과학은 빅뱅 모델을 거부한다. 이것이 왜 그 모델이 늘 변하는지, 왜 수백 명의 세속 물리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우주론 성명서"에 서명하는지의 이유이며, 그들은 빅뱅모델이 많은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임시 방편적 요소들"을 사용하기에 그 이론을 거부한다고 설명한다.[1] 예를 들면, 빅뱅이 물리학의 법칙들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것은 같은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반물질은 관찰 가능한 우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2]

먼 우주의 추론적 온도가 놀랍도록 균일하다(1/100,000도 차이)는 것 역시 빅뱅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빅뱅 모델이 참이기 위해서는 초기 우주의 어떤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야만 한다. 뜨거운 부분에서 방출된 빛은 차가운 부분들로 열을 운반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균일한 추론적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빛이 뜨거운 부분들에서 차가운 부분들로 도달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빅뱅모델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 즉, 138억년 동안도 관찰 가능한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뜨거운 지점과 차가운 지점이 현재 관찰되는 균일한 온도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3]

빅뱅은 별들이나 은하들을 만들 수도 없다. 가스압(별들은 압축된 가스의 구체)과 자기력과 같이 밀어내는 힘은 일반적으로 입자간의 작은 인력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물질들은 공간과 함께 팽창하면서 서로 뭉쳐지는 것이 아닌, 흩어져야만 한다. 빅뱅은 다른 많은 근본적인 과학적 문제점들로 가득차 있다.[4] 왜 이토록 문제가 많은 이야기를 고집하는가?

빅뱅을 강등시키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태초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는 바와 빅뱅설의 차이로 인한 충돌로서,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빅뱅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의 뜨겁고 무질서한 폭발로 시작된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명령하신 물과 함께 시작된다. 창세기 1장 16절은 하나님이 창조 주간의 넷 째날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한다. 그리고 시편 33편 6–9절에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한다. 빅뱅 이야기는 수십억 년에 걸쳐 발생했지만, 성경의 창조는 단지 6일 동안이라고 말씀한다. 빅뱅은 태양과 별들이 지구보다 먼저 생겼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 반대라고 확언한다.

세속적인 빅뱅 우주론은 창조주와 그분의 기적이 들어갈 곳이 없지만, 창세기는 창조 주간의 구체적인 기적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빅뱅을 사용하셨다면, 그분은 '그분의 위대한 책'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신 것일 뿐 아니라, 순서마저 빅뱅 식의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된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기록된 진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5] 그분은 창세기에 기록하신 그대로 행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자신의 진실하신 성품을 스스로 폄훼한 것이며, 이것은 다른 중요한 메세지의 신뢰도까지 낮추게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과학과 성경 모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이야기인 빅뱅을 논박한다.

Brian Thomas, M.S. / 번역 : 이충현

1. An Open Letter to the Scientific Community. Fact Sheet. Posted on blog.lege.net/cosmology/cosmologystatement_org.html May 22, 2004, accessed August 31, 2016.
2. Peebles, P. J. E. 1993. Principles of Physical Cosmolo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403.
3. Secular attempts to solve this and other problems often generate new problems. See Carmona, J. M. et al. 2006. Matter–antimatter asymmetry without departure from thermal equilibrium. Modern Physics Letters A. 21: 883–892.
4. The universe has too much lithium–6 for the Big Bang to explain. See Measurement at Big Bang Conditions Confirms Lithium Problem. Helmholtz Press Release. Posted on hzdr.de August 27, 2014, accessed September 19, 2016. Astronomers keep finding "mature" galaxies in distant space that should instead show disordered gases. See Thomas, B. Distant Galactic Cluster Should Not Exist. Creation Science Update. Posted on ICR.org May 21, 2010, accessed August 31, 2016. Last, recent measurements showed that about half of outer space has a slightly lower inferred temperature than the other half, exactly unlike Big Bang predictions. See Erickcek, A. L., M. Kamionkowski, and S. M. Carroll. 2008. A hemispherical power asymmetry from inflation. Physical Review D. 78 (12): 123520.
5. 2 Peter 3:9.

2005년 이래로, 진화의 증거로 각광받는 의견이 있는데, 유전학적으로 침팬치와 인간의 진화적 관계를 찾았다는 연구 보고이다. 인류학, 해부학, 발생학이 의존했던 형태적 유사성의 논리가 유전자 염기서열의 유사성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유전정보와 침팬치의 유전정보가 98% 일치한다고 발표해왔다. 어느 새 많은 대중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전학은 인간과 침팬치가 친척임을 보여주나?

그런데, 사실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퍼돔 박사는 말한다.[1] 게놈을 분석한다는 것은 최종 그림이 없는 거대한 직소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이 막대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0년 가까이 엄청난 비용과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투입되어 30억쌍의 염기서열을 해독해냈다. 비용 등 여러 이유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침팬치의 염기서열을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게놈을 비교하기 원하는 연구자들은 전제를 필요로 했다. 그 전제는 인간과 침팬치가 조상을 공유했고, 따라서 유사한 염기서열을 상당량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 위에 인간 게놈을 견본으로 삼아 침팬치의 DNA의 일부를 배열했던 것이다. 그 배열이 실제 침팬치 유전자의 염기서열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쉽게 비유자면, 스포츠카를 만드는 레고 블록 세트의 조립 순서를 따라 오토바이 레고 블록 세트를 배열하는 셈이다. 먼저 스포츠카를 만드는 레고 블록 세트를 뜯어 모든 블럭들을 조립 순서대로 한 줄로 배열을 한다. 그 다음, 오토바이 세트에서 스포츠카의 블록과 닮은 블록들만 골라내어 짝을 맞추듯 나란히 배열을 한다. 그리고, 이 닮은 블록들의 배열 부위만을 비교해서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닮은 블록들만 골라내서 비교했으므로 비교적 일치 비율은 높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게놈에 대해 침팬치의 염기 배열을 시도한 부위는 전체 DNA의 약 1%였으며[2], 그 약 1%의 염기서열이 상당히 유사해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블록 중에서 스포츠카의 바퀴와 오토바이의 바퀴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비교해 놓고는,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보아 오토바이로부터 스포츠카로 저절로 개량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분명 논리적 비약이고, 비현실이다. 더불어 일부 유사한 블록들이 있을지라도, 나머지 대부분의 다른 블록들 때문에 한 쪽은 스포츠카, 다른 한 쪽은 오토바이 완성품을 조립할 수 있듯이, 밝혀지지 않은 대부분의 염기서열이 인간과 침팬치의 차이를 만들 것이다.

더 큰 심각성은, 관련 연구들을 들여다 보면, 유사성을 비교한 유전자의 염기서열들 조차 처음에 발표된 일치성(98%)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 방법을 검토하고,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인간의 DNA와 침팬치의 DNA 전체를 고려한 분석들은, 약 60–70% 정도만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한다.[3] 이는 최소 9억쌍의 염기서열이 다르다는 뜻이다. 책으로 치면 1000쪽자리 두꺼운 백과사전 300권 분량이다. 이렇게 막대한 정보 생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진화 메커니즘은 없다.

인간과 침팬치의 염기서열 비교 연구를 통해 둘 간의 진화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유사성의 덫일 뿐이다. 진화의 입맛에 맞게 선택된 방법과 그 결과로 도출된 자료에 대한 비약적 해석, 그리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발표가 없이는 어떠한 진화적 증거도 밝혀진 바가 없다. 진화론의 패러다임 안에 갇히면, 인간과 침팬치가 공통조상을 가졌으며 약 9억쌍의 염기서열이 저절로 조합되어 한 쪽은 침팬치로, 다른 한쪽은 인간으로 진화한 친척 관계라고 설명하고 끄덕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어떻게 정교하게 암호화된 수억 쌍의 정보가 우연히 생성될 수 있는가는 묻지도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휘성
과학교사

[1] 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Dir. Steve Feldman, Laura Nietzel, Prod. Tim Wylie, Charlotte Spivey, ICR, 2014, DVD.
[2] http://creation.com/1-percent-myth
[3] Jeffrey P. Tomkins: New Research Evaluating Similarities Between Human and Chimpanzee DNA, Proceedings of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Pittsburgh, PA: Creation Science Fellowship, 2013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2/20~26, 2017

조정민(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공룡이 안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공룡 발자국, 뼈가 발견되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실까지 부인한다고 생각하니까 성경도 믿을 수 없고 교회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창조과학탐사가 있다는 광고를 듣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공룡, 인류, 홍수와 방주 등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다.

김다솜(생명공학 박사과정)
처음으로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모든 것을 완전하게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패러다임이 무섭지만 하나님은 그 패러다임까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배용현(수학입시학원 경영)
창조과학탐사는 'Who am I?'라는 저의 오래된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대자연과 우주, 별 등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김예진B(대학교 3학년)
모태신앙이었지만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 무신론자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보게 하셨고 '나의 존재를 네가 인정하고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지수(대학교 졸업)
그동안 저는 진화론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그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실존주의, 뉴에이지 현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진화론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증거 없는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송준혁(대학교 3학년)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정설이든 비판적으로 여러 번 곱씹어 보고 심사숙고 하는 편입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과학과 성경은 더 이상 양립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7 ACT Schedule

3/25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CA), Bill Hoesch
3/31-4/7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4/8-1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16-21	창조과학탐사 (높은뜻푸른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5-6/1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4-9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10	창조과학세미나 (순회선교단), 이재만
6/12-20	창조과학탐사 (기쁨의동산교회), 이재만
6/19-22	창조과학세미나 (Johns Creek Korean Church Youth Retreat, GA), 김선욱
6/21-25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6/26-28	창조과학탐사(미주한인예장 남가주노회 EM), 김선욱
6/29-7/1	창조과학탐사(얼바인베델교회 Youth EM), 김선욱
6/26-7/2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